

데스크 시국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2016년 4월, 국내 미술계의 시선은 온통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박수근미술관으로 쏠렸다. 양구 출신 박수근(1914~1965년)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박수근미술상' 수상자로 황재형(68) 화백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황 화백이 1회 수상자로 선정되자 미술계 전반에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보성 출신으로 중앙대 미대를 졸업한 그는 1983년 별 인연이 없는, 물설고 낯선 태백시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대학 시절 견학 간 삼척탄광에서 광산 노동자들의 척박한 삶에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황 화백은 광부들이 짊어진 노동의 무게를 직접 느껴 보기 위해 탄광살이를 하기도 했다. 이후 '아버지의 자리', '탄천의 노을' 등 대표작들을 쏟아 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인성미술상'

많은 미술인들이 부러워한 것은 그에게 제공된 수상 특전이었다. 상금 3천만 원과 상패뿐만 아니라 박수근미술관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두 차례 주어지는 수상작가전이 그것이다. 단지 의례적인 시상에도 그치지 않고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수상자의 예술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한다는 건 당사자에게는 상금보다도 훨씬 값진 선물일 터. 실제로 박수근미술관에서 열린 수상작가전은 무려 1년 가까이 열려 주말 연휴나 휴가철에는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다.

사실, 박수근미술상이 탄생되는 데에는 치밀한 준

'오지호미술상' 이의 있습니다

비 작업이 있었다. 서민들의 애환을 따뜻한 인간애로 표현한 박 화백의 작품 세계를 기리는 취지에 맞게 양구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 등이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시상제 방식을 찾아 낸 것이다. 미술상 전체를 조율하는 운영위원회와 역량 있는 작가를 연구·발굴하는 추천위원회,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3단계 심사는 현재 미술계에서 시상제의 좋은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3일 대구미술관에서는 '이인성미술상' 운영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전시회가 개막됐다. '위대한 서사'라는 제목으로 내년 1월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는 광주 출신 황영성 화백을 비롯해 김중학·이강소·김구람·최병소·이상국·정준미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이인성미술상은 한국 근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1912~1950)의 숭고한 예술 정신을 기리고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대구시가 제정한 상이다. 이 때문에 역대 수상자들은 당대 이 화백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흐름 안에서 각 시대를 대변하며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올해는 추천위원회의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의 강요배(68) 작가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해 상금 5천만 원과 대구미술관 초대 전 개최 특전을 제공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상금과 엄격한 심사 영향 때문인지 매년 이인성미술상 공모에는 전국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린다.

대구에 이인성미술상이 있다면 광주에는 '오지호미술상'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광주와 대구에서 비슷한 시기에 왕성한 활동을 펼친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을 기리는 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다르다. 거장의 예술 정신과 미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오지호미술상'은 '이중섭미술상'(1988년 제정, 상금 1천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1992년 창설됐지만 40년이라는 '전통'에 비해 상(賞)

의 위상이나 영향력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시 시업을 광주에총이 주관하면서 '광주시 문화예술상'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국악·문학 등 다른 장르의 수상자와 함께 시상하다 보니 미술상의 '존재감'을 잘 살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상금(1500만 원)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상장(상패) 수여와 수상작가전 개최의 혜택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금도 없어 퇴락 창작 의욕 꺾어

하지만 수상작가전 개최 혜택도 사실상 허울뿐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 선정된 '2020 광주시 문화예술상'의 '오지호미술상' 분상 수상자인 서양화가 양재형 씨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단돈 40여만 원(도록 제작 포함)의 비용으로 작가가 직접 전시장을 찾아내 일정 기간 안에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꺾는 '허울 좋은' 수상작가전이러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양구군과 대구시가 미술관의 큐레이팅으로 수상기념전을 기획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물론 미술상의 위상이 상금과 부상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닐 터이다. 하지만 오지호미술상이 국내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의 창작 의욕을 키우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오지호미술상을 '광주문화예술상'에서 분리해 브랜드화하고 대구시처럼 공립미술관에게 운영을 맡겨 내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

마침 올해는 오지호(1905~1982) 화백이 태어난 지 115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 화단에 남긴 그의 '위대한 유산'이 빛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 오지호미술상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그것은 곧 거장에 대한 예우이자 예향 광주의 미래이기도 하다.

총명(聰明)이 몽당연필만 못하다

행기가 없을 듯 싶었다. 싱거운 것 같았는데 감칠맛 나는 글이어서 읽는 사람이 자서전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글쓰기가 어려워 머뭇거린 사람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할 정도였다.

'총명이 불어뚱필'(聰明不如斷筆)이라 했다. 아무리 명석하고 기억력이 뛰어나도 몽당연필로 서투르게 쓴 기록만 못하다는 말이다. 한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분이 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속칭 메모광(狂)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과거에 했던 자신의 말과 글로 근거를 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록된 증거를 억울함을 벗어난 경우도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흔적을 없애 버려 지운다는 기사도 간혹 보이지만, 자신만의 백지에 또박또박 기록해 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숫자로 기록한 학교의 정리는 이렇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은 '우한 폐렴' 발병을 처음 공개했으며,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코로나19'로 이름을 바꿔 달고 계속 확산이 되었다. 설마 하다가 새 학기 3월을 망연자실 휴업으로 보냈다. 법정 수업일수에 맞춰 9월 처음 휴업 수업이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계획한 올해 수업일수는 191일이었다. 28일간 휴업을 했고, 66일은 모든 학년이 원격 수업을 했다. 70일은 1개 학년 또는 2개 학년이 부분 등교했고, 모든 학생이 등교한 것은 41일뿐이었다. 방학을 줄여서 수업일수 177일. 1학년 신입생은 지금도 신입생 기본이며, 3학년은 떠밀림 졸업한 느낌이다.

주변에 자신의 삶을 책으로 정리한 분들이 많다. 자신을 위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PPT로 만들기도 한다. 큰 비용 없이 개인적으로 출력해서 제본만 맡겨도 좋다. 평생교육기관이나 자치단체 프로그램에 자서전 쓰기 강좌도 눈에 띈다. 안철효는 '자서전을 씹는다'에서 이렇게 권유하고 있다.

"자서전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인물이 훈시를 하듯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잖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훈적인 저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처럼 미미한 존재가 자서전을 써도 되는가 하고 겁을 먹기 쉽다. 자서전이란 그렇게 두려워할 개념이 아니다. 그런 경외감을 자서전의 성적이 워인전과 같다 라는 오후로부터 비롯한다. ... 자서전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에서 '철 모르는 딸'과 단 둘이살아가는 어부의 인생살이가 '넓고 넓은 가회동의 대저택'에서 살아가는 '재벌 총수나 정치 지도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새해에도 시국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때 자서전 쓰기를 권해본다. 주변 분들에게 안철효의 책을 새해 선물로 돌리고 함께 자서전이란 사진첩이란 만들어 보려고 한다. 내년 연말에는 원고 봉지를 들고 만났으면 좋겠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삶이 집행 정지된 느낌이다. 이렇게라도 내년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학 교육,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재제하며, 이견의 손자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해야 하는가를 사회 의제로 던지며, 선별 복지를 주장했다. 온 나라가 복지병에 걸려서 망할 것처럼 캠페인을 했다.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했고. 현역 시장인 그는 낙선했다. 국민들의 생각은 명확했다. 이견의 손자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아이들은 모두가 교육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교육이 극적으로 편입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도화지·색연필·활חו를 살 필요가 없고, 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는 물론 급식비를 내지 않는다. 수업료·등록금을 내지 않고, 교복도 제공하며, 통학 비용도 국가가 지급한다. 교과서도 무상이고, 학습 기자재도, 방과 후 교육비도 제공한다. 광주 학생들은 야구장도, 축구장도 선생님 손잡고 구경한다. 기초·기본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도가 이루어지고, 학교 부적응 친구들을 위해 전담 의사와 상담사가 투입되고, 가정 어려운 친구들에게 복지 꾸러미가 제공된다. 그래서 교육은 보편적 복지가 되었다. 도시락 싸고, 눈발 팔아서 장남 공부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떠났던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움직임은 대학문 앞에서 멈춰져 있다. 왜 그럴까?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학 교육을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편입시켜서, 사교육비 대신 적절한 세금을 걷어서 모든 젊은이들을 재능에 따라 대학에 갈 수 있게 한다.

꿈을 향해 노력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이 지독한 고통을 사회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한 것이다. 이 밑바탕에는 배우는 것에서 차별을 두지말자는 사회적 합의가 굳건하기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문 앞에서 멈춰져 있는 이 보편적 교육 복지의 엔드라인을 대학을 지나서까지 밀어 올려야 한다. 직업 전문성을 기르는 보편적 직업 준비의 장으로 대학을 보편화하고, 그 이후에 대학원 등을 통해 심화시키자는 것이다.

월 60만 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모두를 대학에 보내자. 된 헛소리인가. 복지 아젠다에는 마르크스도 몰랐던 혁명적 물질 토대가 숨어 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잠들면 졸은 꿈을 꾸고 싶다. 이 역진 불가능한 인간의 본성은 고등학교를 지나, 기어이 대학을 보편적 교육 복지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말 것이다. 10년 전 일군의 진보 교육감들이 만들어낸, 보편적 교육 복지의 유형은 지금 이 시간, 대학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다. 국가 장학금 제도 확대와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같은 방향은 다음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감기에 걸리면 동네 병원에 가듯이 교육은 그렇게 복지여야 한다. 교육을 복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교육의 목표는 소수의 수월성이 아니라 '수포자'를 없게 하는 교육 소의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저녁이 있는 삶은 교육 복지 유형과 함께 불현듯 찾아올지 모른다.

은편칼럼



김진구
일신중 교감

"1996년 12월-부모님 집에 석유(14만 원) 넣어 드림(9일), 집에 들러 부모님과 저녁 식사로 떡국 먹음(22일), 우리 가족 생당에서 9시 미사 참례 후 집에 들러 부모님과 점심-저녁 식사(25일), 아들과 집에 들러 점심 식사, 동산탕 함께 목욕 후 저녁 식사(29일), 부모님 집에 누님이 세탁기(금성 10kg, 67만 5000원) 사 드림(31일)" 교육행정직에 근무하고 있는 한홍규 서기관이 두툼한 A4 봉지를 가지고 왔다. 내용 좀 검토해 달란다. 편하게 말해서 자서전을 쓴 것이다. 주변에서 간혹 있는 부탁이다. 40년의 공직 생활과 가족의 대소사, 문중 이야기,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글이었다. 위에 인용한 일기 형식과 같은 간단한 메모와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5남매의 우애와 부모님의 근황을 자주 묻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다. 오랜 세월 이렇게 기록해 왔다고 했다. 처음에는 조금 쓰악했는데 읽을 수록 그제 아니었다. 묶음으로 읽어 보니 그의 일생이 그려졌다. 자녀들과 집안 분들에게는 이런 실천적 효

기고



이재남
광주양산초 교감

'교육 복지'라는 유형이 서울을 포위하며 서서히 한강 너머로 복사하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장학재단의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월 수입 1500만 원이 되어야 SKY에 입학할 수 있고, 입학생의 55%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자녀 한 명당 월 30만 원의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있다. 자식이 들어면 60만 원이다. 매달 2억 원 은행 대출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고 있으면서 원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빚쟁이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젊음의 꽃을 피우보기도 전에 대학문 입구에서 낙오자를 만드는 이 불공정한 현실이 수십 년 유지되고 있다. 공부해 못하는 것은 다 네 탓이고, 공부만 잘하면 인(in) 서울 또는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지독한 한 줄 세우기 임시 경쟁 체제가, 국민적 최면과 내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10년 전 일군의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복지를 주장하며, 무상 급식을 실천할 때 있었던 일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후보는 아이의 알몸을 식판으로 가린 광고를

社說

옛 도청의 무더기 탄흔 '무차별 사격' 증거다

옛 전남도청 본관 회의실과 전남경찰국 건물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탄흔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7월 처음으로 확인된 것보다 50배 이상 많은 410개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본관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5·18 당시 옛 전남도청에 대한 탄흔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본관 회의실과 전남경찰국 뒤편에서 모두 410개의 탄흔 추정 자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전남도청 회의실 우측면에서 탄두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도 발견,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 연구원과 함께 이들 탄흔과 탄두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탄흔이 발견된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 작전에 맞서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항거한 역사적 장소다. 당시 3공수여단 특공대원들은 새벽 네 시께 전남도청 뒷담을 넘어 작전을 개시했다. 바로 탄흔이 다수 발견된 전남경찰국

뒤편이다. 또 전남도청 회의실은 시민군 지도부가 최후까지 항쟁했던 공간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청에는 총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5년 리모델링 과정에서 회반죽과 페인트로 매워져 찾기가 쉽지 않았다. 추진단은 지난 7월야야 도청 본관 1층의 서무과 출입문 위쪽과 회의실로 사용된 건물 외벽에서 서여덟 개의 총탄 자국을 발견했다. 이후 적의선 열화상 및 방사선 투과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탄흔 조사에 나선 결과 무더기로 탄흔 등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80년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옛 도청 일대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음을 말해 준다. 이제 옛 도청 별관과 상무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인 옛 도청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 사랑 절실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기부 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듯하다.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눈금은 현재 40도 근처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목표액을 낮추고 시작했지만 예년 같은 기간의 실적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 모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 목표액 달성 현황을 나타낸다. 성금은 기초생계비·의료비, 청소년 급식·교복비,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회복지 시설의 냉·난방비, 저소득층 방임아동 야간 보호 등에 쓰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사랑의 온도탑이 얼어붙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해만 해도 광주는 54억8956만 원, 전남은 99억5180만 원을 모금해 사상 최대 규모

를 기록한 바 있다. '사랑의 온도탑'이 모두 100도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에 수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정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따뜻한 이웃 사랑이 절실하다.

올해는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연말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는데, 연말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나눔의 마음까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상원 회장의 말처럼 십시일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 주었으면 한다.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 아직 모금 기간은 한 달 정도 남아 있다.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이상으로 필필 꽃기를 기원한다. 나눔의 캠페인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

無等鼓

올해 주식시장은 오늘로 마감된다. 올해는 증권시장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다. 코스피지수는 올해에만 28%가 올라 G20 국가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과정은 더 극적이었다. 코로나19로 3월에 1431까지 떨어진 코스피지수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사상 처음 2800선을 넘어서더니 이젠 3000선을 복권에 두고 있다. 연중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 95%나 급등한 것이다.

'동학 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도 대단했다. 둘 이상 모이면 주식 애기가 주를 이루고 '자본 개미들의 힘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공매도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다 개인들의 반발에 물러섰고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 공모주 청약 시 개인 배정 물량도 10% 더 늘리기로 했다. 주식 열풍 속에 신조어도 속출했다. 미국 등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학 개미'에 이어 신규 투자자들이 늘면서 '주린이'(주식+어린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공모주 열풍에 '따장'(상장 당일 주가 시초가의 두배로 시작할 이상 뒤 상한가 도달)이란 말과 거품 논란에도 주가가 일하게 하리'는 종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말이 격언처럼 퍼들었다. 열풍을 반영해 유명 시사잡지사는 올해의 인물로 '동학 개미'를 선정하기도 했다.

2년 만에 투자금을 6배나 늘린 개미들은 주식시장 비중이 76.2%를 차지할 만큼 주도 세력이 됐다. 스마트 개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수익률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에 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 등 개인 순매수 상위 6개 종목은 50% 안팎의 고수익을 올렸다.

가게들이 힘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공매도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다 개인들의 반발에 물러섰고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 공모주 청약 시 개인 배정 물량도 10% 더 늘리기로 했다.

수익 열풍 속에 신조어도 속출했다. 미국 등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학 개미'에 이어 신규 투자자들이 늘면서 '주린이'(주식+어린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공모주 열풍에 '따장'(상장 당일 주가 시초가의 두배로 시작할 이상 뒤 상한가 도달)이란 말과 거품 논란에도 주가가 일하게 하리'는 종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말이 격언처럼 퍼들었다. 열풍을 반영해 유명 시사잡지사는 올해의 인물로 '동학 개미'를 선정하기도 했다.

2년 만에 투자금을 6배나 늘린 개미들은 주식시장 비중이 76.2%를 차지할 만큼 주도 세력이 됐다. 스마트 개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수익률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에 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 등 개인 순매수 상위 6개 종목은 50% 안팎의 고수익을 올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